

제 목	국 문	의사인력 수급추계 방법론 비교		
	영 문	The comparison of methodologies in projecting supply and demand of physician manpower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유승흠 <sup>1)</sup> , 정상혁 <sup>2)</sup> , 손대용 <sup>3)</sup> 1)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유한전문대 의무행정과		
	영 문	Seung-Heum Yu <sup>1)</sup> , Sang-Hyuk Jung <sup>2)</sup> , Tae-Yong Sohn <sup>3)</sup> 1)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2) Kwando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3) Yuhan Junior College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 ), 연구중 (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 목적</p> <p>의사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추계하는 작업은 여러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의사인력 수급을 주제로 다루었던 연구들의 방법론을 검토하여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수요계측에 의한 방법론을 사용한 의사인력 수급에 관한 연구들중 1990년 이후 발표된 5편의 의사인력에 대한 보고서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의사인력 수급추계와 관련된 가정과 추계방법의 타당성과 추계치의 정확도 등 방법론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p> <p>2. 연구 방법</p> <p>의사인력 수급에 관한 연구들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2단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의사인력 수요와 공급 추계방법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였고, 2단계에서는 사용된 모형과 가정을 분석하여 연구들의 가정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p>				

### 3. 연구결과

의사취업률에 대한 가정은 의사공급추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정이다. 연구대상인 다섯 연구 모두 현재의 의사취업률을 가정하여 미래의 의사취업률을 추계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진료의사수의 추계는 현재 의사의 연령별 취업률을 바탕으로 미래의 의사수를 추정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비진료의사수를 추계하여 이를 미래의 가용의사수에서 감하여 주는 연구방법이 타당할 것이다.

의료수요량 추계방법의 경우 미래에 변화될 모습을 가정하고 모형화하여야 미래에 대한 수요예측이 정확할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의료이용율의 증가가 현재와 같을 것이라는 가정에 의료수요를 예측한 점, 국민의료비의 증가가 무한정 커질 것으로 가정한 점이 연구방법상에 있어서 적절치 못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미래 추정이 어느 정도 가능한 변수만을 선정하다 보니 주요변수가 누락된 점은 의료수요 추계모형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의료수요 추계가정에서 의료보호 수혜인구의 의료이용량 추계를 의료보험과 동일한 증가추세로 반영하여 추계한 점은 가정상 무리가 있다. 거택보호환자와 시설보호자의 경우 의사의 시간적 할애보다는 간호사나 기타 진료보조인력들의 투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의료보호 입원환자의 경우는 의사수요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다소 낮은 가중치를 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의원급 의사의 상당수가 기대수익에 도달하기 위해 진료량을 확대될 전망이므로 진료량의 감소가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의원급 의사들의 행동가정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 4. 고 찰

의사인력 수급에 관한 연구를 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추가로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의사인력의 공급에 대한 추계에서는 첫째, 의사인력에 대한 외국과의 비교에서 일차의료에 대한 약사의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 둘째, 의학과 한의학이 분리되어 있는 의료체계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외국 의과대학이나 한의과대학 졸업생들의 국내 유입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통일을 대비한 의사인력 관리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의료수요에 대한 추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상의 가정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전·후의 의료수요의 차이를 감안하여 의료수요에 대한 추계를 위해서는 1990년도부터의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둘째, 국민들의 3차의료기관선호를 포함한 의료이용행태에 대한 내용도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의료보험수가 구조하에서 의사들의 기대수익과 관련하여 의사의 생산성을 산출해야 한다.